우암학원 창학 70주년
남부대학교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204호 1판 (음력 2월 4일)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코로나19 '공포'… 광주 시내버스·지하철 이용객 '반토막'

확진자·접촉자 탑승 알려져
대중교통 이용 기피 현상
버스·열차·항공 모두 급감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버스와 열차, 지하철 등 광주지역 운수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확진자와 접촉자들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지역 곳곳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대중교통 이용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신천지 대구 교회 예배에 참석한 광주 신도와 그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광주지역 시내버스 이용객은 총 156만98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2만9452명에 비해 무려 42.5%(115만956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역시 이용률이 크게 줄었다. 최근 6일간 광주도시철도를 이용객 수는 21만167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만8453명보다 33.5%(10만6783명)이 감소한 것이다.

광주 시내를 오가는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하루 평균 이용객만 놓고 보면 평상시 50만7985명에서 코로나 확산 이후에는 29만6927명으로 21만1058명(41.5%)이 줄어든 셈이다.

광주시민들이 출·퇴근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공포'에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고속버스와 열차, 항공편 등 광주 시외를 비롯해 해외를 오가는 교통수단은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데다, 여행과 출장 등 시외 이동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고속에 따르면 광주고속버스터미널(유·스퀘어)에서 고속버스와 직행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기 시작한 20일부터 25일까지 6만4865명으로 전년(14만1632명)보다 7만6767명(54.2%)이나 감소했다. 코로나 재확산 전까지 30%대 감소율을 보이다가 '신천지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감소율이 두 배 가까이 치솟는 등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게 금호고속의 설명이다.

광주송정역에서 KTX와 SRT 열차를 탄 이용객도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8969명에서 41.4%(5만7592명) 감소한 8만137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은 전년 15개 노선에서 현재 9개 노선으로 40% 줄었고, 국내선도 4개 노선에서 2개 노선으로 50% 줄었다. 덩달아 최근 6일간 무안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해 해외를 나간 이용객도 전년(1만3699명) 대비 무려 85%(1만1649명) 감소한 2050명에 불과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2283명에서 342명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광주의 운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시민들이 해외는 물론,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자제하는 것 같다"며 "이용객 감소로 버스와 철도, 항공 등 운수업계가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웅·김민석 기자 pboxe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코로나19 때문에 … 종이로 만든 학사모

친구들이 종이로 손수 만든 학사모를 씌워주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광주지역 대학들의 학위수여식이 취소되면서 학사모와 학사복 대여가 어려워지자 종이로 직접 만든 학사모가 등장했다. 26일 오전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앞에서 졸업장을 수령한 졸업생에게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하루에 284명 … 코로나19 확진자 최대폭 증가

국내 총 1261명·사망 12명
광주·전남 추가 확진자 없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환자 발생 한달여만에 1000명을 넘어섰다. 26일 하루 동안 국내에선 코로나19확진자만 284명이 추가 발생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광주·전남에선 3일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2·3·4·6·7·8·15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가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169명과 115명 추가돼 국내 확진자수는 총 12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난 12명이다. 이날 추가된 12번째 사망자는 74세 남성으로 신천지대구교회 교인이다. 지난 14일 발병해 19일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확진됐다. 호흡기 증상이 악화해 23일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옮겨져 기계호흡치료 등을 받았으나 이날 사망했다.

이날 2명(37·51번 환자)이 완치돼 확진자 중 총 24명이 격리 해제됐다. 광주·전남은 지난 24일부터 3일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에 확인된 신규 환자 115명 중 대구·경북 환자는 82명이다. 대구에서 33명, 경북에서 49명이 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환자 수는 1000명을 넘겼다. 대구에서 710명, 경북에서 317명의 환자가 보고돼 총 1027명이 됐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 수는 경기(51명), 부산(58명), 서울(49명), 경남(34명), 광주(9명), 강원(6명), 대전(5명), 충북(5명), 울산(4명), 충남(3명), 전북(3명), 인천(3명), 제주(2명), 전남(1명), 세종(1명) 등이다. 전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도 5만명을 넘어섰다. 확진 환자를 제외하고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5만2292명이다. 이 중 3만157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만716명은 검사 중이다.

정부는 방역 대응에 고삐를 바짝 죄며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체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를 4주 안에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진단 검사 물량을 집중해 지역사회 내 환자를 찾고, 이들의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전공대 법인 설립 심의
"서류 미비"… 3월로 연기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한전공대 법인 설립 인가 심의가 또다시 연기됐다.

26일 교육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28일 한전공대 법인 설립 인가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한전 측이 제출한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3월로 심의를 미뤘다.

한전이 공대 설립을 위해 제출한 재원 마련 근거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심사위원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앞서 지난해 8월 이사회를 열고 2025년 편제 완성시까지 대학 설립과 운영에 8289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한전은 설립비 6210억원, 운영비 2029억원 가운데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600억원을 초기에 출연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 재원 조달 계획 서류를 제출했으나, 일부 심사위원들은 개교까지 소요되는 시기별 출연 금액을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해 명시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28일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에 출연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근거, 시기 등을 논의한 후 관련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학교 법인 설립 인가가 잇따라 보류되고 심사가 연기되면서 2022년 3월 정상 개교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한전과 전남도는 선을 긋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한전 이사회가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을 의결한 것은 한전이 책임을 지고 한전공대를 설립하고 운영하겠다는 의미"라며 "법인 설립 과정에서 절차가 늦어지는 것으로 비쳐지나 정상 개교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 40만㎡ 부지에 학생 1000명(대학원 600명·학부 400명) 규모로 설립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홍재의 세상만사 ▶2면
정찬주 다큐 소설 '광주 아리랑' ▶9면